

申之梯의 詩에 나타난 交遊 양상 연구*

김기엽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한문학전공 박사수료 / sinchay@hanmail.net

차례

1. 머리말
2. 의병 활동을 통한 교유와 항전 의식의 공유
 - 1) 현감 재직 시기의 구국 활동과 국난 극복의 의지
 - 2) 영남 의병과의 접점과 순국열사에 대한 추모
3. 雅會를 통한 유대의 확인과 교유의 확장
 - 1) 전란 후의 지속적인 교유와 雅會의 풍류
 - 2) 契會와 交遊詩에 나타난 유대 의식
4. 맺음말

* 이 논문은 BK21 플러스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1. 머리말

예술적 가치의 구현을 추구하는 순문학의 영역에서 옛 문인들의 시는 자신의 사유를 전달하고 다른 문인들과 정서적인 유대와 결속을 강화할 수 있는 문학적 수단이었다. 우리나라 문학사에서 文運이 성대한 시기였다고 일컬어지는 조선 중기에는 전란 속에서도 뛰어난 한시 작가들이 등장하여 시로 정감을 표출하고 교류하며 많은 문학 작품을 남겼다. 梧峯 申之悌(1562~1624) 또한 조선 중기의 문인으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의병 활동을 주도하고 전란이 끝난 후에 당대의 文豪들과 시를 주고받았던 인물이다.

신지제는 임진란이 일어나기 한 해 전에 예안 현감을 제수받고 그 이후로 전란을 수습하느라 7년을 지방에서 머물렀지만, 오히려 부모님을 봉양하고 李滉의 高弟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평소 李滉에게 직접 배우지 못했던 것을 아쉽게 여겼던 그는 매달 陶山書院에 가서 사당에 배알하고 이황의 문인들과 경전을 강론하며 우의를 다졌다. 이때 그들과 함께 왜적에게 유린당한 국토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국난 극복을 위한 결의를 다지며 남겼던 작품들이 『梧峯集』 권1에 실려 있다.

영남을 거점으로 임진왜란 때는 향병을 이끌고 왜적을 막은 朴毅長·金垓·郭再祐와 구국 활동을 함께 하였고, 정유재란 때는 순국한 趙宗道를 비롯하여 呂大老·孫起陽·趙亨道·成安義 등과 팔공산성에서 왜적을 방비하였다. 신지제는 훗날 창원 수령으로 한가하게 지낼 때에도 이들과 교류를 유지하여 서로 시를 주고받거나 함께 유람을 즐겼다.

중앙 조정에서 잠시 벼슬했던 시기에는 동향의 관료들과 ‘同道會’를 만들어 掌樂院에서 모임을 가진 뒤 『嶺南同道會題名卷』이라는 계첩을 남겼다. 이 同道會는 서울에서 벼슬살이하는 동향인들이 친목을 다지고자 만든 것으로, 신지제는 계첩의 명단에 실린 문인 중에 당시 재상을 지냈던 李好閔을 위시하여 李民宥·李民寔 형제, 曹友仁, 趙靖 등의 관료들과 지속적인

으로 시를 주고받았다. 28세에 치른 과거에서 對策文으로 갑과 3인에 들었고 知製敎에 제수되어 임금의 명으로 교서를 지어 올렸던 이력¹⁾과 중앙 관료들에게 학문적 성취를 인정받으며 시를 통해 저명한 문사들과 나누었던 교류 등은 범상치 않은 그의 문학적 역량을 대변해준다.

현재까지 신지제의 가계나 학문, 의병 활동에 대한 연구²⁾를 제외하면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로는 창원 부사 재직기의 작품에 나타난 정서를 다룬 연구³⁾만 진행되어 있다. 그의 시문학에는 전란 속에 의병 활동으로 맺어진 우의와 다양한 학맥·직위의 문인들과 교류한 정서 등이 담겨 있으며, 그 실체는 신지제의 인적 관계망과 교류한 문인들의 시적 경향 및 交遊詩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일부 구명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에 신지제가 벼슬에 출사한 이후로 교류했던 인물 및 그들과 주고받았던 시를 총체적으로 살피려 한다. 이를 통해 작품에 표출된 문인들 간의 정서적인 영향과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사유의 양상을 이 글에서 밝혀 보고자 한다.

2. 의병 활동을 통한 교류와 항전 의식의 공유

1) 현감 재직 시기의 구국 활동과 국난 극복의 의지

지리상으로 영남 지방은 조선 중기의 왜침 때 북상하는 적들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은 지역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시기에 영남에서 활동하던 문

1) 심경호, 『《梧峯先生文集》 해제』, 『梧峯先生文集』 1, 한국국학진흥원, 2019, 23~71면.

2) 장필기, 『조선후기 義城 鶴州申氏家の 가계 이력과 향촌 재지 기반』, 『사학연구』 88호, 한국사학회, 2007, 685~718면, 황만기, 『오봉 신지제의 학문 경향과 삶의 제 양상』, 『영남학』 69, 영남문화연구원, 2019, 179~211면. 신수식, 『오봉 신지제의 생애와 임진란 의병활동』, 성문기획, 2020.

3) 줄고, 『梧峯 申之梯의 生涯와 詩에 表출된 鬱結의 樣相』, 『韓國漢文學研究』 76, 한국한문학회, 2019, 337~374면.

인 중 많은 이들이 의병 규합, 통문 작성, 군량 지원 등 의병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힘을 보태었다.

1589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살이를 시작했던 신지제는 1591년에 예안 현감을 제수받고 영남 지방에 내려와 전란을 겪게 된다. 그가 전란 중에 겪었던 사건들과 교유했던 문인들은 연보에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출사한 뒤 전란을 수습하던 시기에 지은 시들은 대부분 『梧峯集』 권1에 실려 있다.⁴⁾

연보에 따르면 신지제는 중앙 요직에 있던 柳成龍과 金誠一에게 인정을 받았고,⁵⁾ 예안에 부임한 후로 전란 속에 민심을 수습하면서도 이항의 문인인 趙穆·金富倫·琴蘭秀⁶⁾ 등과 성리학을 강론하며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초유사 김성일과 의병대장 金垓가 죽자 이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만시를 지었고, 관찰사 洪履祥이 청량산이 왜적을 방비할

4) 줄고, 앞의 논문, 340~345면. 『梧峯集』은 연대순으로 시를 편집하고 각 한시가 수록된 첫 면에 작품이 지어진 시기와 창작 경위를 小注로 밝혔다. 시기별로 지은 시가 각 권마다 나누어 실려 있어 편집자가 문집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연보와 구성 체계에 많은 공을 들였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5) 『梧峯別集』, 『梧峯年譜』: 이단에 대하여 논한 대책문으로 1등에 뽑혔다. 당시 서애 류성룡 선생이 시관으로 있었는데 어떤 이가 ‘이번 시험에 장원한 사람은 그 문장이 어떠한가에 이토록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까?’라고 묻자, 류 선생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면 아마 문장보다 나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선생은 연로한 아버이를 편히 모시기 위하여 고향에 가까운 고을에 부임하길 원하였다. 학봉 김성일 선생이 안타까워 하며 ‘이제 막 벼슬길에 나왔는데 어찌 그리 서둘러 외직으로 나가려 하는가? 조정에서 자네를 병조의 낭관으로 천거하려고 논의 중인데 어찌하여 조금 기다려보지 않는가?’라고 하니, 선생이 답하기를 ‘벼슬길이 트이고 막히는 것은 운수에 달려 있고, 또 고을이 고향집과 가까워서 찾아뵙고 살피기에 편합니다.’라고 하였다.[對異端策擢第一。時西厓柳先生爲恩門，有問者曰：新榜壯元，其文何如，而等第若是巍巍？柳先生曰：若品題其人則始過於文矣。……先生以親老便養，願赴近邑。鶴峯金先生惜之曰：仕進之初，何可汲汲求外補乎？朝議將薦君驕郎，盍少待乎？先生答曰：宦路通塞有數，且縣近庭闈。爲便於省覲。]

6) 연보 草記에는 趙穆·金富倫·琴蘭秀와 성리학을 강론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교정과 보완을 거친 뒤에 간행된 『별집』 연보에는 李德弘이 추가되어 趙穆·金富倫·李德弘·琴蘭秀와 왕래하며 교유하며 경전의 뜻을 강론하였다고 한다.

거점으로 삼기에 적당한지 살피기를 요청하자 孤山에 은거하던 琴蘭秀와 동행하여 청량산의 형세를 둘러보았다. 임기가 끝난 뒤에도 예안을 지킨 업적을 인정받아 李元翼의 啓請에 의해 예안 현감을 연임하며 지방에 남았고, 7) 정유재란 때 순찰사 종사관이 되어 팔공산성과 화왕산성에서 의병 활동을 이어나갔다고 한다.

신지제는 예안 현감으로 재직할 때 趙穆(1524~1606)을 만나 아래의 次韻詩를 남겼다.⁸⁾

금 기운이 살벌한 해국의 가을에	金氣稜稜海國秋
흰 깃대 휘날리는 곳 오랑캐 벌벌 떠네	白旄揮處虜人愁
한나라 조정이 조만간 분봉하는 날에	漢廷早晚分茅日
정원후의 명성이 범의 머리에 있으리	定遠榮名在虎頭

차운 대상인 조목의 지는 士敬, 호는 月川, 본관은 橫城이다. 이황의 高弟로 陶山書院에서 『退溪集』의 간행을 주도하였으며, 제자 중에 유일하게 도산서원의 尙德祠에 배향되었다. 임진왜란 때 예안 일대에서 의병들의 군량을 지원하였고 아우와 두 이들을 곽재우의 진영에 합류시켜 영남 지역을 방어하는 데에 큰 힘을 보탰으며, 잠시 군자감 주부를 지낼 때 일본과의 강화를 반대하였던 인물이다.

인용한 위의 시는 신지제가 조목에게 차운한 3수 중의 1수이다. 起句는 肅殺하는 가을의 金 기운으로 왜적에게 살벌함을 보이고 그들을 물리치리라는 바람이 드러나 있다. 結句의 定遠侯는 한나라 班超가 서역을 정벌한 공으로 받은 봉작이고 범의 머리는 ‘귀인의 상’을 나타내는 말로, 관상가가 반초를 보고 “그대는 제비의 턱에다 범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날

7) 『梧峯別集』, 『梧峯年譜』: 체찰사 상국 李元翼이 성상께 아뢰어 예안 현감을 계속해서 맡길 것을 청하였다.[體察使李相國 元翼啓請仍任]

8) 申之梯, 『梧峯集』 卷7, 『謹次月川丈【趙公】穆韻』 1首.

며 고기를 먹을 것이니, 그야말로 만리후에 봉해질 상이다.[燕領虎頭, 飛而食肉, 此萬里侯相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이 시어들을 통해 신지제가 항병을 이끌고 함께 왜적에 대항하던 조목에게 곧 왜적을 물리치고 나라에 공을 세울 것임을 鼓舞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국난 극복과 항전의 의지가 드러난 위의 1수에 비해, 2수와 3수는 전란의 모습과 이에 대한 시름을 위주로 그려 내어⁹⁾ 조목이 지은 原詩¹⁰⁾의 정서에 더욱 가깝다. 이 작품들은 『月川集』 연보에서 같은 운자로 된 시를 참고할 때, 조목의 나이 71세인 1593년의 9월에 신지제가 淸吟石에서 그와 어울리면서 차운한 것으로 보인다.

신지제는 임진란이 일어나자 달아난 안동 수령을 대신하여 예안 현감과 안동 부사를 겸직하고 군사를 규합하여 영남 지역의 방어에 힘썼다. 이 시기에 친형 申之孝와 스승 격인 金誠一, 의병장이자 親友였던 金垓의 죽음을 겪게 된다. 긴 전쟁으로 인한 참상을 목도하고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겪었던 그는 일본에 대한 결사항전의 굳은 의지를 가졌다. 그러나 명나라에서 조선을 침략한 일본과 講和를 시도하자 이에 대한 울분을 시로 표출하여¹¹⁾ 金富倫(1531~1598)에게 전하였다.

9) 申之悌, 『梧峯集』卷7, 『謹次月川丈【趙公】穆韻』2首: 萬國兵前又送秋, 年年節序在閒愁. 五更落月初回夢, 鴻鴈悲鳴水北頭.

위의 시 3首: 文武衣冠異昔秋, 天荒地老鬼神愁. 西風古木鳴寒葉, 一夜孤臣盡白頭.

10) 趙穆, 『月川集』年譜, 萬曆 21년 條: 9월에 淸吟石에서 노닐며 지은 절구 1수가 있으니 다음과 같다.[九月, 遊淸吟石, 有詩一絕曰:]

단풍과 국화가 눈에 가득한 가을에	赤葉黃花滿目秋
푸른 시내와 산이 시름에 젖게 하네	碧溪青嶂使人愁
변방 먼지 사라지지 않아 아직 한이 많으니	邊塵未掃猶多憾
궁중 향해 임금 그리며 몇 번이나 고개 들었나	望日思君幾舉頭

11) 申之悌 著, 『오봉선생문집』 2, 김기엽·김홍구·천성원 譯, 한국국학진흥원, 2019, 210면. 이하로 이 글에서 인용한 신지제의 시들은 『오봉선생문집』 1·2(김기엽·김홍구·천성원 譯, 한국국학진흥원, 2019)의 번역을 참고한 것이다.

하늘을 뒤덮은 요망한 기운 언제 없어지려나	蔽天氣祲幾時清
삼한 땅에 다섯 해 내내 전쟁이 끝나지 않네	五載三韓不解兵
작은 나라에 좋은 대책 없음을 스스로 알지만	褊壤自知無上策
잃어버린 대국의 위신은 어떻게 회복하려는지	大邦何復損王靈
동창 아래서 마침내 남조의 의론 주동하니	東牕竟主南朝議
용절 들고 범 아가리로 간 사행길 헛수고였네	龍節徒勞虎口行
도망쳐 돌아온 필부의 일 참으로 가소로우니	堪笑逃來匹夫事
외국에 사신으로 나가는 임무 가볍지 않구나	四方專對任非輕

김부륵의 지는 惇敍, 호는 雪月堂, 본관은 光山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가산을 기울여 의병을 도왔고, 달아난 봉화 현감을 대항하여 수습에 힘쓴 공을 인정받아 特敎를 통해 봉화 현감의 직임을 맡았다.

신지제는 조선에서 5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전쟁을 한탄하고, 南宋의 간신 秦檜가 金나라와 和議할 것을 주장한 일을 인용하여 명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어 일본과 강화를 시도한 것을 빗대었다. 명나라가 일본과 강화하는 것을 굴욕적이며 부질없는 일로 인식하고, 『春秋』에서 鄭나라 집정대신 鄭詹이 국난을 해결하기 위해 齊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역류되었다가 구차히 목숨만 부지하여 도망쳐 돌아온 고사를 인용하여 신중한 외교의 어려움을 말하였다.

김부륵과는 종종 국난 극복을 위한 방안을 상의하고 雅會 또한 자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梧峯別集』에는 신지제가 항전을 위해 김부륵과 의견을 나누고 적의 동정을 알린 서간이 실려 있으며,¹²⁾ 또 평소 차운했던 많은 시들을 통해서 그와 나눈 교유가 깊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지제는 일찍이 洪履祥(1549~1615)에게 소백산·청량산·주왕산·팔공산 등 영남의 험준한 산을 거점으로 삼아 왜적을 방비하자는 의견을 올린

12) 申之梯, 『梧峯別集』, 「答雪月丈書」

적이 있는데, 1594년에 관찰사로 부임한 홍이상이 이를 허락하자 청량산으로 형세를 살피러 떠난다. 이때 琴蘭秀(1530~1604)를 만나서 함께 청량산을 유람하고 시를 남겼다.

어른께서 늘 고산이 좋다 말하곤 했는데	丈人每說孤山好
고을살이 삼 년 되도록 찾아오지 못했네	到縣三年未得遊
어려운 일 많은 데다 다시 병란을 겪어	多難更逢兵革日
水雲鄉 찾겠다는 약속 누차 저버렸네	佳期屢負水雲秋
짚신 신은 이 단풍 저문 데로 돌아간다 하고	芒鞋告去丹楓晚
군마 탄 백발 늙은이 시름겹게 떠나가네	戎馬臨行白鬢愁
변경 고을에 조만간 나랏일이 안정되면	早晏邊州王事定
모시고 유람하며 잠시 시름 녹여 보리라	得陪幽賞暫消憂

금난수의 지는 聞遠, 호는 惺齋·惺惺齋, 본관은 奉化이며, 이황의 及門弟子이다. 위 시는 신지제가 1591년 예안 현감에 제수되고 이로부터 3년이 지난 1594년 9월에 금난수와 청량산을 유람한 뒤 이별할 때 지어준 시이다.¹³⁾ 首聯에서 말한 孤山은 지금의 안동시 도산면 佳松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당시 지명은 日洞이었다. 금난수는 만년에 이 지역에 日洞精舍를 짓고 은거하였는데 이 일동정사 일대는 지금 孤山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신지제가 청량산으로 향하면서 산자락에 있던 孤山에 들렀을 때 이들을 금난수가 맞이하고 배웅한 내용이 『遊清涼山錄』에 보인다.¹⁴⁾

13) 申之悌 著, 앞의 책2, 290면.

14) 申之悌, 『梧峯集』 卷6 『遊清涼山錄』: 3일에 아침밥을 먹었다. 康孝業이 먼저 출발하고, 나는 器仲(金槁의 자)과 함께 말을 나란히 달려 溫溪를 경유하여 孤山에 이르러 금난수 어른을 찾아뵈었다. 금난수 어른이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배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금난수 어른이 비록 세상일을 잊지는 못했지만 이미 이러한 곳이 있었고 아울러 이러한 즐거움이 있으니 내가 향리의 소인배들에게 허리를 굽히면서 부끄러운 줄을 알지 못하는 것과 어느 것이 낫겠는가? 금난수 어른과 기중이 나를 배 위에서 배웅하였다.[三日蓐食. 康先發, 余與器仲聯轡, 由溫溪抵孤山, 訪琴丈蘭秀. 琴丈聞吾至,

예안 현감을 맡은 지 3년이 지나도록 유람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다가, 군사적 거점의 활용 여부를 위해 산의 형세를 살피는 임무를 통해서야 만나게 된 미안한 심정이 首聯과 頷聯에 나타난다. 이 頷聯의 水雲鄉은 宋나라 陸游의 「秋夜遣懷」 시에 “여섯 해 만에 돌아와 수운향에 누웠노라니, 일없이 한가한 몸 바쁠 리가 있으랴.[六年歸臥水雲鄉, 本自無閑可得忙]”라고 한 구절을 인용한 것으로, 번잡한 속세를 벗어나 한가로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을 표현한 것이다.

頸聯에서는 고산으로 돌아가는 금난수의 모습을 부러워하며, 이를 전란 속에 현감으로서 민정과 군무를 살피느라 고달픈 자신의 처지와 대비시켰다. 尾聯의 조만간 나라일이 안정되면 다시 산수를 함께 유람하지는 구절을 통해, 머지않아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확신과 국난이 극복된 훗날에는 임무와 걱정을 털고 오롯이 유람만을 즐길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엿볼 수 있다.

여기서는 금난수가 세속을 초탈하여 고산에서 유유자적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지만, 임진왜란 때 예안 지역의 의병 활동에 군량을 지원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그의 장남 琴懷 또한 정유재란 때 광재우의 진영에서 활약한 인물로서 모두 국난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았던 이들이었다.¹⁵⁾

신지제는 청량산 여정이 지인과 동행한 유람을 겸하였으나 또한 전쟁 중에 맡겨진 임무의 한 부분임을 잊지 않았다. 당시 산행에서 전략적 요충지를 살필 군관 康孝業과 지형을 그림으로 남길 화가를 대동하였으며,¹⁶⁾ 산의

候于舟……琴丈雖未得忘于世，而既有此地，併有此樂，與吾折腰於鄉里小兒而不知恥者，得失何居也？琴丈與器仲送我于舟上.]

15) 신수식, 앞의 책, 131면.

16) 『遊清涼山錄』은 전란 중의 긴장감이나 삼엄함이 최대한 배제된 산수유기로서 경관 서술과 유람 여정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일부 대목에서 형세 파악을 위한 유람임을 짐작할 수 있다. “康孝業이 일찍 일어나 산의 형세를 그리라고 재촉하였는데, 화공의 솜씨가 몹시 졸렬하여 형세가 실제만 못하니 매우 우스운 일이었다. 고을사람이 전하는 말에 ‘옛날에 어떤 왕이 산중에 나라를 세워서 험지를 거점으로 삼아 적을 피할 곳으로 삼았다.’라고 하였다. 지금도 성곽은 그대로 남아 있으나 군데군데 넓고 무너져

형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졸렬한 화가의 솜씨를 풍자한 시도 남겼다.¹⁷⁾

2) 영남 의병과의 접점과 순국열사에 대한 추모

조선 중기에 닥친 전란을 극복하는 데에 의병들의 역할이 지대했고 이들에 대한 칭송과 기록들은 무수히 많은 서책에 실려 전해진다. 그 중 임진·정유의 난리 때 영남 지방에서 활약한 의병은 개인 문집¹⁸⁾ 외에 『國朝寶鑑』·『懲毖錄』·『燃藜室記述』·『亂中雜錄』·『再造藩邦志』 등의 여러 史籍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史籍에 기록된 영남 의병과 신지제의 시에서 접점이 보이는 인물로는 金垓(1555~1593), 趙宗道(1537~1597), 郭再祐(1552~1617), 呂大老(1552~1619), 成安義(1561~1629) 등이 있다. 이 중에 郭再祐·呂大老·成安義는 전란을 넘기고 이후로도 꾸준히 시를 주고받으며 교류를 유지하지만 김해와 조종도는 전란 중에 순국하고 만다. 임진왜란 때 순국한 김해는 신지제와 同鄕의 同榜이었으며, 정유재란 때 전사한 조종도는 신지제의 먼 인척으로서 각별한 관계에 있었다.

김해의 자는 達遠·호는 近始齋·본관은 光山으로, 이항 문인 金富儀

있었다.[康早起促圖山形, 畫手甚拙, 形勢不肖, 極好笑也. 邑人傳曰: '古有王者, 國於山中, 爲據險避敵之地.' 今城郭俱存, 往往頽圯.](『梧峯集』 卷6, 『遊清涼山錄』)

17) 申之悌 著, 앞의 책1, 94면: 「화가가 산을 너무 못 그렸기에 장난삼아 짓대[畫師圖山形甚拙 戲吟]

명산을 구름처럼 그려 놓았으니	畫來名嶽類丘陵
어찌 쓸데없이 종이만 버렸는가	何事區區費剡藤
산의 참모습 내보이기 싫어서였지	知汝厭傳眞面目
화가 원래 솜씨 없어서가 아니라오	畫師非是本無能

18) 丁若鏞의 『牧民心書』 「兵典·禦寇」, 許穆의 『記言』 「東序記言」을 비롯하여, 鄭經世의 『愚伏集』·金誠一の 『鶴峯集』·鄭述의 『寒岡集』·鄭仁弘의 『來庵集』·趙任道의 『澗松集』·成汝信的 『浮查集』·李魯의 『松巖集』 등 각 문집에 실린 從遊錄·遺事·行狀·碑銘에 개인의 의병 활동이 기록되어 있다.

의 아들이다. 신지제와 김해는 1589년 증광시에 같이 급제한 뒤 각각 司瞻寺直長과 承文院正字을 지냈는데, 임진란 중에 신지제는 예안의 수령이 되고 김해는 의병이 되었다.

김해는 의병 대장으로 추대 받아 무인으로 큰 전과를 올렸지만 전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문인으로서도 뛰어난 학문과 문예적 성취를 이루었다. 가학파 『近始齋集』에 실려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그가 가진 유학자로서의 소양을 짐작할 수 있는데, 임진란 때 남긴 『鄉兵日記』는 전란 초기의 피해 상황과 의병을 조직하는 경위, 조정의 關文, 전투 내용 등이 실려 있어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¹⁹⁾

신지제는 동료 유학자이자 의병장인 김해가 죽자 그를 애도하는 만시를 20운으로 지었다. 아래에 만시의 일부를 소개한다.

고관은 목가를 두려워하고	達官怕木稼
철인은 용사의 해를 꺼린다지	哲士忌龍蛇
얼마 전 학봉 선생을 애도했는데	曾悼鶴峯逝
그대 또 죽었으니 어찌하랴	又如達遠何
.....	
얼마 전 부인을 잃었다고 했는데	卽說遭盆歎
갑자기 그대 상여 온다고 들었네	驚聞返柳車
떠도는 말 처음에 안 믿었는데	行言初不信
마침내 부고가 오고 말았네	凶訃竟非訛
어찌하여 나라가 쇠퇴하는지	爭奈邦家瘁
친구에게 통한이 일게 하네	徒貽舊識嗟
집안에 아들은 아직 어리고	庭孤年未長
어머이는 머리가 다 백발이라	堂老髮皆皤
.....	

19) 沈壽哲, 『近始齋 金垓의 生涯와 文學世界』,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76~83면.

첫 구절의 木稼는 나무에 물방울이 얼어붙어 기묘한 형태를 이룬 것으로 훌륭한 인물이 세상을 떠난 것을 안타까워하는 표현이다. 또 龍蛇에 해당하는 간지인 辰年과 巳年은 현인에게 불행이 닥치는 흉년으로 일컬어지는데, 전란이 일어난 해가 壬辰年이며 당시 의병장으로 활동하던 金垓와 招諭使 金誠一이 동시에 세상을 떠난 해가 癸巳年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황의 조카인 李宰의 딸을 배필로 맞이했던 김해는 부인 이씨가 세상을 떠난 지 1개월 만에 경주의 陣中에서 뒤이어 순국하고 만다. 뜬소문처럼 믿어지지 않은 知己의 부고를 받고는 부모 없이 남겨진 김해의 어린 자식과 봉양할 이 없는 연로한 그의 노부모를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위의 시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同榜生으로서 우의가 깊었던 신지제와 김해는 전란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불행히 먼저 죽게 된다면, 살아남은 사람에게 처자식을 맡기기로 사전에 약속을 해두었다.²⁰⁾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병 대장을 맡았던 김해가 먼저 세상을 떠나 그의 자식들이 모두 굶주리게 되자, 신지제는 김해의 남은 가족들을 거두어 보살피며 지난 약속을 지켰다. 『梧峯集』 권1에는 위의 만시 외에 김해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가 2수 더 실려 있다.

분분한 풍진 세상 자네는 어디로 갔는가	風塵擾擾子何歸
덧없는 옛 추억 옷 한 벌만 남겼네	舊事淒涼一薛衣
죽은 이 알 수 없고 남은 이만 괴로우니	死者無知生者苦
들보 비추던 밝은 달빛 꿈에 선하여라	屋樑明月夢依稀

위는 「죽천자의 시에 차운하여 근시재 김해 달원을 애도하다[次竹川子

20) 『梧峯集』 연보와 李民寘이 쓴 행장에 내용이 보인다. “말이 시사에 미칠 때마다 서로 개탄해 하며 ‘우리는 마음을 합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만약 불행한 일이 생기면 처자식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였다.[每語及時事, 輒相與慨然曰: 吾輩當一心殉國, 脫有不幸, 可託以妻子.]”

韻, 哀近始齋金達遠』라는 작품 2수 중 1수에 해당한다. 죽천자는 洪汝栗(1563~1600)의 호이다. 홍여울은 태조의 御眞을 보관하는 集慶殿 참봉을 맡아 慶州에 있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어진을 받들고 왜적을 피하여 義州에 있는 행재소까지 가져간 공로를 인정받아 사헌부 감찰을 제수받았던 인물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인 1584년 9월에 홍여울과 김해가 도산서원에 모여서 『退溪集』을 교정할 때 함께 참여했던 것으로 보이²¹⁾ 두 사람은 동향의 문인이자 사승을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힘을 쏟았던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²²⁾

어지러운 전란 속에 옷 한 벌만 남기고 떠난 벗의 죽음을 애석해하며, 두보의 『夢李白』에 “지는 달빛 들보에 가득하니, 그대 얼굴이 비치는 듯하네.[落月滿屋梁, 猶疑照顏色]”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다시 만날 수 없는 김해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었다. 신지제가 차운했다는 홍여울의 原詩는 확인할 수 없으나 사용된 운목으로 보아 김해가 죽기 전에 남긴 絕命詩²³⁾에 홍여울이 먼저 화운하였고, 여기에 다시 신지제가 차운한 것으로 보인다. 서로에게 가족을 맡길 정도로 김해와 교분이 두터웠던 신지제는 청량산을 살피면서 지은 시에서도 그의 죽음에 대한 애석한 심정을 나타내었다.²⁴⁾

21) 신승운, 한국문집총간 『퇴계집』 해제, 한국고전번역원, 1998.

22) 심경호, 『문자와 매체 : 조선선비의 문자생활과 지적 교류』, 『국학연구』 14, 2009, 413~449면, 스승의 문집을 간행하는 일은 사승을 확인하고 발전시키는 일과 관계되어 공격 성격을 띠었다. 이때 『退溪集』은 추가적인 편집과 교정을 거친 후 도산서원에서 경자본으로 간행되었다.

23) 신수식, 앞의 책, 184면.

나라에 보답하려는 평생의 충의	報國平生義
당당하게 일신에 철갑옷 입었네	堂堂一鐵衣
혼이 있으면 다시 싸울 것이니	有魂應復戰
관으로 돌아가는 나를 꾸짖으리	嗔我載棺歸

24) 申之梯 著, 앞의 책1, 97면 : 「또 승려 昏에게 주다[又贈勸師],
옛날에 나의 벗 낙원자가 昔者吾友洛園子
청량사에서 두견 시를 읊었네 淸涼寺中賦杜鵑

한편, 정유재란 때 순국한 趙宗道(1537~1597)는 신지제의 부인 조씨와 같은 문중의 인물이다. 咸陽 군수를 지냈던 조종도가 임진왜란 때 李魯와 함께 募兵을 위해 돌린 通文의 구절²⁵⁾과 평소 입버릇처럼 말했던 내용,²⁶⁾ 정유재란 때 郭越과 함께 黃石山城에서 전사하기 전에 읊었던 시²⁷⁾는 각종 史籍에 실려 있으며, 실록에서도 아들과 함께 순국한 조종도를 褒獎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²⁸⁾

신지제는 1597년 4월에 순찰사 종사관으로서 영남 지방에 파견되어 八公

죽은 3년 간 항상 슬펐었는데 死別三年常惻惻
그때의 시를 그대가 전하는구려 當時題句爾來傳

여기서 낙원자는 金垓를 가리키는데, 『梧峯集』 卷6, 『遊清涼山錄』에 신지제가 절에 묵었을 때 승려들이 보여준 시축에 김해의 시가 있었다는 내용이 보인다.

- 25) 趙慶男, 『亂中雜錄』 1, 「壬辰年」: “죽음이 비록 싫기는 하지만 천지에 적들이 그물처럼 둘러싸서 도망칠 곳이 없다. 구차히 살기를 도모하여 개·돼지처럼 참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차라리 의리에 죽을지언정 감히 살기를 바라겠느냐? 仁을 위해 삶을 버려야 할 것이다.[死雖可惡, 網天地而無逃. 生縱欲偷, 在犬豕而忍活, 等其死也, 寧死於義敢望生乎? 捨生於仁.]” 이하로 인용한 史籍은 한국고전번역원DB와 조선왕조실록의 번역을 참고한 것이다.
- 26) 『國朝寶鑑』 卷32, 「宣祖朝9·30年(丁酉)」: “나는 녹을 먹는 사람이니, 도망하는 무리와 들관에서 함께 죽을 수는 없다. 죽을 때는 분명하게 죽어야 한다.[我是食祿之人, 不可與奔竄之徒, 同死草間. 死則當明白死耳.]” 여기서 ‘나는 녹을 먹는 사람이니[我是食祿之人]’가 정약용의 『牧民心書』, 『兵典·禦寇』에는 ‘내 일찍이 대부의 뒤를 따랐으니[吾嘗從大夫之後]’로 되어 있다.
- 27) 『國朝寶鑑』 卷32, 「宣祖朝9·30年(丁酉)」: “공동산 밖의 생활도 즐거웠지만, 장순·허원처럼 성을 지키다 죽는 것도 영광일세.[崆峒山外生猶喜, 巡遠城中死亦榮.]” 『梧峯集』에는 ‘崆峒山外生猶樂’으로 되어 있다.
- 28) 『宣祖實錄』 卷94, 宣祖 30년(1597) 11월 14일 신축 1번째 기사: 黃石山城이 敗沒될 적에……咸陽郡守 趙宗道는 처자를 이끌고 山城에 들어가서 지키다가……다시 郭越을 남문으로 찾아가서 손을 잡고 말하기를 “형세가 이미 여기에 이르렀으니 죽음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고, 드디어 그의 아들 趙英混 및 곽준과 함께 모두 피살당하였습니다.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음을 제 갈 길로 여기고 조용히 자처하였으니, 각별히 褒獎하여 風化의 근본을 삼아야 합니다.[黃石山城敗沒時……咸陽郡守趙宗道, 挈妻子, 入守山城……往見郭越於南門, 執手相告曰: “勢已至此, 有死而已.” 遂與其子英混及郭越, 皆被殺. 右人等, 皆視死如歸, 從容自處, 各別褒崇, 以爲風化之本.]

山·禮安·咸陽 등지를 다녀갔는데, 부인 조씨의 친정인 함양을 지날 때 당시 군수로 있던 조종도가 술을 가지고 마중 나와 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신지제와 순찰사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조종도가 “공동산 밖의 생활도 즐겁지만, 장순·허원처럼 성에서 죽는 것도 영광이라[崆峒山外生猶樂, 巡遠城中死亦榮]”라고 읊었고, 의기가 충만한 이 구절은 그가 순절한 이후 각종 사적에 실리게 된다.

신지제의 부인 조씨는 趙址의 딸로 본관이 咸安이니, 趙宗道와는 漁溪 趙旅(1420~1489)를 같은 조상으로 한다. 조려는 世祖가 端宗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자 咸安에 은거했는데, 이때 꿈에 쇠로 된 호랑이 3마리를 보고서 세 아들의 이름을 각각 趙銅虎·趙金虎·趙鐵虎로 지었다고 한다. 꿈에 본 호랑이의 모습이 두 마리는 튼튼하고 한 마리는 병약했다고 하는데, 꿈 내용과 같이 趙鐵虎는 후손이 쇠락하고 趙銅虎와 趙金虎는 번성하여 함안에서 巨族을 이루었다.

신지제의 부인 조씨는 바로 이 조동호의 후손이고, 조종도는 조금호의 후손이 된다. 신지제는 창원 부사로 재직하던 시기에 함안 조씨의 집성촌인 院北村을 주제로 시를 지어 처가에 전해지는 충절을 기리고, 위의 집안 내력을 小注로 밝혔다.²⁹⁾

.....

홀륭한 천령 노인은	有美天嶺老
의기가 하늘 높이 치솟네	意氣薄層空
일생을 크게 웃으며 마치니	一生長笑了
만인과 같음을 부끄럽게 여겼네	恥與萬人同
지난날 풍진이 일던 즈음에	曩日風塵際
멀리 공동산에 살기를 생각하더니	遠想在崆峒

29) 申之梯 著, 앞의 책1, 194~199면.

우뚝한 황석산성의 일을 보면	磊落黃石事
결국 자기 몸을 돌아보았던가	畢竟何有躬
.....	
숙부와 조카가 푸른 바다에서 죽으니	叔姪死碧海
한 집안에 충신이 셋이나 나왔네	一門有三忠
평소 하던 말씀을 떠올려보니	像想平生語
예부터 품어 온 한 가슴 저리네	宿昔恨忡忡
.....	

위의 인용은 「院北村에서 일을 서술하다[院北村述事]」 중에서 문중 사람들의 충절을 기린 부분이다. 天嶺은 함양의 옛 이름으로 조종도가 함양 군수를 지냈기 때문에 천령 노인이라 칭하였다. 조종도의 의기를 칭송하면서 ‘일생을 크게 웃으며 마쳤다[長笑了]’라고 한 구절은 조종도의 호 大笑軒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崆峒山은 중국 黃帝 때의 은자 廣成子가 있던 곳으로, 조종도가 함양 군수로 있을 적에 읊었던 시에도 인용되었다. 신지제는 조종도가 생전에 읊었던 시구를 인용하여, 평소에는 은거하며 살기를 바랐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그의 결의를 기렸다. 또한 조종도와 같은 문중의 사람으로 정유재란 때 울산의 鶴城에서 왜적을 막다가 순국한 趙鵬(1534~1598), 진주성 전투와 器門浦 해전에서 활약하고 정유재란 때 황석산성에서 순국한 조봉의 조카 趙凝道(1555~1597)를 추모하였다.³⁰⁾

小注를 통해서 위 시는 신지제가 창원 부사를 지내던 시기에 함양을 지나 부인의 재종형제인 趙益道의 집에 묵었던 것을 계기로 지은 작품임을 알 수 있다. 宣傳官을 지낸 조익도 또한 李适의 난을 평정한 공훈으로 原從勳臣에 오른 인물이다. 조익도의 집에 신지제가 묵는다는 소식을 듣고 조종

30) 심경호, 앞의 해제, 54면.

도의 아들 趙英漢이 찾아오자, 조종도를 비롯한 함안 조씨 집안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충의를 시로 기렸던 것이다.

小注의 말미에 “내가 이 거친 시를 지은 것은 옳고 즐기려는 것이 아니다. 내 아들이 제 어미 집안의 옛 일을 알아서 마음에 느끼는 바가 있고, 또한 외가에 천령공의 충의가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 힘쓰도록 하기 위함이다.”³¹⁾라고 하여, 아들 申弘望에게 외가의 내력을 알게 하고 자부심과 충의를 가지고서 더욱 분발하기를 바라는 목적의 作詩였음을 밝혔다.

3. 雅會를 통한 유대의 확인과 교유의 확장

1) 전란 후의 지속적인 교유와 雅會의 풍류

신지제는 정유년(1597) 2월에 사간원 정언으로 중앙에 복귀한 뒤 세자시강원 문학을 잠깐 지냈다가, 몇 달 뒤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곧 순찰사 종사관에 제수되어 적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 영남 지방으로 파견되었다. 대구에서는 팔공산성에 들어가 呂大老(1552~1619)·趙亨道(1567~1637)·孫起陽(1559~1617) 등과 함께 방어하였고, 함안에서 황석산성을 지키던 趙宗道가 죽고 함락되자 화왕산성에 있던 郭再祐와 연합하여 의병 활동을 통해 적을 토벌하였다.³²⁾

전란 중 의병 활동을 통해 맺어진 그들 간의 교유는 전란이 끝난 뒤에도 이어져, 훗날 한가하게 지낼 때에도 서로를 방문하고 모여 시를 짓거나 함

31) 申之悌 著, 앞의 책1, 199면.

32) 이때 세운 공을 인정받아 『倡義錄』에 이름이 기록되고 추후에 宣武原從功臣 1等과 虜聖原從功臣 2等に 녹훈되었다. 『倡義錄』은 광재우의 후손 郭元甲이 광재우를 비롯한 의병들의 사적과 인물을 기록한 책으로, 임진왜란(1592) 때 모집에 응한 사람의 명단을 기록한 『龍蛇應募錄』과 정유재란(1597) 때 화왕산성 방어에 공을 세운 이의 명단을 기록한 『火旺入城同苦錄』으로 구성되어 있다.

께 유람을 즐겼다. 신지제는 전란이 끝나고 창원 부사로 재직하던 시기에 손기양과 함께 곽재우의 忘憂亭을 방문하여 아래의 시를 남겼다.

오한 노인이 서찰로 좋은 일 전해 오니	輦叟書來好事傳
공명정 아래에다 작은 배 띄웠네	空明亭下泛蘭船
오리 타고 함께 한 이는 영남루 주인이고	乘鳧相逐嶺南宰
학 타고 들른 곳은 강가의 신선이라네	駕鶴仍過江上僊
고운 기녀는 줄지어 옥고리처럼 둘러 있고	紅袖引行環似玉
술동이 벌여 놓고 샘물처럼 퍼 마시네	綠罇圍坐酌如泉
산수에서 한껏 취해 마음껏 즐기고 구경하니	湖山一醉狂歡賞
천년의 좋은 풍류란 바로 이 자리를 말하리	千載風流說此筵

신지제에게 뱃놀이를 권한 손기양은 자가 景徵, 호가 輦漢, 본관이 密陽이다. 위 시의 제목을 통해 손기양이 신지제에게 서찰을 보내어 곽재우의 망우정에 들러 유람할 것을 청한 후, 가면서 밀양 부사와 空明亭에서 합류하여 술과 기녀들을 신고서 강을 따라 망우정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임을 알 수 있다.³³⁾ 『梧峯集』 연보에서 “1614년 4월에 손기양과 空明亭 아래에서 배를 띄우고 강을 거슬러 올라 곽재우가 있던 정자를 방문하였다.”라고 한 내용이 바로 이 시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小注에서 ‘嶺南은 누대 이름[嶺南樓名]’이라고 한 것은, 옛날 밀양의 영남사라는 절터에 세워진 嶺南樓를 말한다. 시에서 오한 노인[輦叟]은 손기양을, 嶺南樓 주인은 밀양 부사를, 강가의 신선은 곽재우를 나타낸 말이다. 首聯과 頤聯은 뱃놀이의 경위와 참여 인물에 대해 밝혔으며 頸聯과 尾聯에서는 기녀들을 대동하고 술에 취해 산수의 흥취를 한껏 즐기는 광경을 묘사하였다. 뱃놀이의 상황과 감흥만 그려진 작품이지만 형식을 보면 頤聯

33) 申之梯, 『梧峯集』 卷2, 「檜山雜詠·上」, 「景徵書至, 示密伯載酒馱妓, 邀我于空明亭下, 泛舟泝江, 仍過郭季綏【再祐號忘憂堂】」, 江亭有約, 與景徵同之」

과 頷聯에서 낱낱의 글자가 전부 對를 이루고 있어 안팎과 바깥쪽의 對偶에 어긋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과거 항전 활동을 함께 했던 손기양·곽재우는 신지제가 창원 부사로 재직하던 시기에도 깊은 교분을 유지하였다. 곽재우가 망우정 근처에 열린 석류 5개를 선물로 보내오자 이에 사례하는 시를 지었으며,³⁴⁾ 손기양과는 거의 한 달 동안 끝내지 못한 바둑을 두고 감회를 시로 남겼다.³⁵⁾ 아래는 신지제가 벼슬에서 물러나는 손기양에게 지어준 전별시이다.³⁶⁾

무성한 숲속 교외 멀리서 생각하니	遙想郊居著茂林
시내와 산에 짙푸른 안개 자욱하리	霧灘煙嶂綠沈沈
젊어서 동해에 낚싯대 드리웠고	初年東海持竿手
늘그막엔 남산에서 콩 심을 생각이라	晚節南山種豆心
강가 언덕 다니면서 좋은 경치 구경하고	沙岸投筇隨好景
정자에서 자리 바꾸며 시원한 그늘 찾겠지	野亭移板趁清陰
못난 이 몸은 괴로이 헛된 명예에 매여	龍鍾苦被浮名繫
성성한 백발로 동루에 앉아 휘파람만 부는구나	坐嘯東樓雪半簪

손기양의 정치적 역량과 처세를 칭송하고, 벼슬에 얽매인 자신의 모습을 고향에 돌아가 한가로이 지내는 손기양과 대비시켰다. 頷聯에서 ‘동해에 낚싯대 드리웠다[東海持竿]’는 것은 손기양이 벼슬하던 젊은 나이에 백성들의 삶을 넉넉하게 하는 데에 힘썼다는 말이며,³⁷⁾ 이와 對를 이루는 ‘남산에

34) 申之梯, 『梧峯集』卷2, 『檜山雜詠·上』, 「곽계수 영공이 강가 정자에서 섬돌 아래 열린 석류 다섯 개를 보내주기에 한 편을 지어 사례하다[郭季綏令公, 自江亭送階下自生石榴五箇, 仍述一篇謝之]

35) 申之梯, 『梧峯集』卷2, 『檜山雜詠·上』, 「경양과 바둑을 두었는데 거의 한 달 동안 끝내지 않다[與景仰圍碁, 殆一月不止]

36) 申之梯, 『梧峯集』卷2, 『檜山雜詠·上』, 「경정이 이준에게 준 시에 차운하여 경정을 전송하다[次景徵寄李叔平 【坡號蒼石】韻, 送景徵]

37) 『장자』 『外物』에 ‘任公子가 큰 낚싯대에다 소 50마리를 미끼로 써서 큰 고기를 잡아

서 콩 심는데[南山種豆]라는 구절은 그가 늙었을 때 전원으로 물러날 생각을 하였다는 말이다.³⁸⁾ 이 頷聯에서는 손기양의 처신에 알맞은 고사를 활용하면서 각 글자마다 정묘하게 對를 맞추었다. 頸聯에서는 정자의 그림자를 따라 앉은 자리를 옮긴다고 표현하여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을 적절하게 배합시켰다.

이 시는 손기양이 李埈에게 보냈던 시에 신지제가 다시 차운한 것이데, 『磬漢集』 권1에 실려 있는 손기양의 原詩를 통해 손기양이 이준뿐만 아니라 정경세에게도 같은 운자로 지어서 보냈음을 알 수 있다.³⁹⁾

전란 때 신지제와 함께 의병 활동을 한 뒤로 시를 계속 주고받았던 문인에는 呂大老(1552~1619)도 있다. 여대로의 자는 渭叟·聖遇, 호는 鑑湖, 본관은 星州이다. 정유재란 때 신지제와 팔공산성에 들어가 방어하였고 곽재우와 화왕산성에 들어가 의병 규합을 상의했던 인물로, 그의 항전 전력은 成安義와 함께 사적에 실려 전한다.⁴⁰⁾ 아래는 신지제가 呂大老와 마산포

포로 만들어, 浙江의 동쪽과 蒼梧의 북쪽 사람들에게 모두 배부르게 먹였다.’라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38) 도연명이 『歸田園居』를 지어 은거의 즐거움을 표현하면서 “남산 아래에 콩 심으니[種豆南山下]”라고 읊은 부분을 재구성하였다.

39) 孫起陽, 『磬漢集』卷1, 「次李叔平寄詩兼簡鄭愚伏」: “多君謝事臥園林, 靜裏焚香萬籟沉. 忘世固知非素志, 歸田終不負初心. 吟詩何必傳千紙, 進學惟須惜寸陰. 莫作溪山長往計, 聖恩應亦記遺簪. 【右贈蒼石】”

“從倚荒城雪滿林, 海天殘日近西沉. 百年自許驚雙鬢, 千里相傳只兩心. 嶺樹浮空生晚靄, 江雲弄影作春陰. 青山何處尋愚伏, 啼鳥聲中醉墮簪. 【右贈愚伏】”

40) 趙慶男, 『亂中雜錄』1, 「壬辰年」: 경상도 金山 소모관인 博士 呂大老가 군사를 모집하여 적을 토벌하면서 權應星을 임시 장수로 삼았는데, 金沔의 知禮·금산 싸움에 권응성이 협조해 공격한 공이 있었다.……경상도 昌寧의 생원 辛邦楫, 忠義衛 成天禧, 正字 成安義, 幼學 郭趨 등이 군사 7백여 명을 모아 복병을 설치하고 적을 쳐서 서로 계속 적의 귀를 베어 바쳤다.

『燃藜室記述』卷17, 「선조조 고사본말」, “金山 사람 박사 呂大老와 權應星 등이 군사를 모아서 적군 토벌을 도왔는데, 응성이 임시로 대장이 되어서 金沔과 知禮·금산의 적군을 협공하였다.……창녕 사람 생원 辛邦楫·忠義 成天禧·正字 成安義·유학 郭趨·保人 曹悅 등이 군사를 모아서 적군 토벌을 도왔다. 천희 등이 군사 십여 명을 거

에서 뱃놀이를 하면서 수창한 작품이다.

천 이랑 펼쳐진 바다에 파도가 일렁이니	平開千頃漾漣漪
약한 닻줄 바람 겁나서 멀리 가지 않네	弱纜嫌風未遠移
물결에 반짝이는 햇빛 붉은빛으로 넘실대고	穿浪日華紅激灩
술잔에 잠긴 산 그림자 푸른빛이 뒤섞이네	落罇山影碧差池
동해에서 낚시하니 취향이 같아 즐거우나	垂綸東海歡同調
남대에서 달맞이하니 때가 달라 한스럽네	邀月南臺恨異時
우연한 이 모임 나그네 설움 달래주는데	茲會偶然寬寄旅
이 자리에 광문의 시가 빠진 게 아쉽구려	座間惟欠廣文詩

시상은 뱃놀이의 풍류와 흥취를 위주로 전개되고 있으며, 구성은 전반부에서 경물을 묘사하고 후반부에서 감정과 흥취를 그려내었다. 頷聯에서 노을에 붉게 출렁이는 바다의 정경과 어둑해져 가는 푸른 산의 모습을 대비시켰는데, 노을이 투과된 바다 물결과 산이 비친 술잔, 붉은빛과 푸른빛의 색채, 넘실대고 뒤섞인 모양까지 정확하게 짝을 이루고 있다. 頸聯도 낚시줄과 달, 동해와 남대, 즐거움과 한스러움의 감정 등 모든 글자를 대를 맞추어, 경련과 함련에서 대우를 준수하는 근체 율시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준다.

제목과 小注를 보면 뱃놀이에서 여대रो에게 지어준 시를 朴瑞龜(1546~1623)에게 보여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⁴¹⁾ 마지막 구절에 박서구(廣文)의 시가 빠진 것이 아쉽다는 신지제의 말에서 그의 시적 역량이 입증된다. 박서구의 지는 呈夏, 호는 嶽堅, 본관은 密陽, 출생은 鳳城(경북 봉화)이다. 저술로 『嶽堅詩集』이 있으며, 창원 교수를 맡았으므로 신지제가 ‘嶽堅老人’

느리고, 창녕의 적군을 포위하고 종일토록 교전하여 본 읍의 군수라고 자칭하는 적을 쫓아 맞추자 3일 만에 적군이 성책을 불지르고 도망갔다.”

41) 申之梯 著, 앞의 책1, 319면, 「마산포에서 뱃놀이를 하며 여대로 어른에게 올리고 광문에게도 보이다[馬浦泛舟 奉呈呂聖遇丈 兼示廣文]」

또는 ‘廣文’이라고 불렀다. 신지제가 창원 부사로 재직하면서 지은 시를 모은 『檜山雜詠』 상·중·하에는 창원 교수 朴瑞龜와 수창한 시가 가장 많이 실려 있다.⁴²⁾

2) 契會와 交遊詩에 나타난 유대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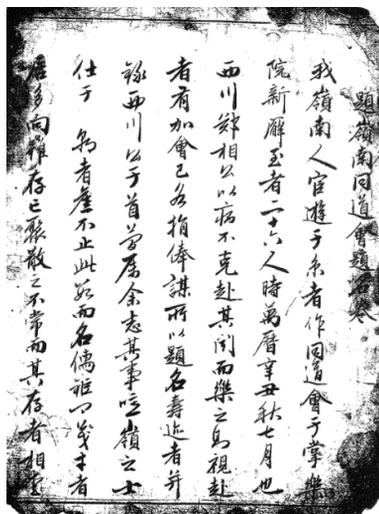
신지제는 1601년 7월에 영남 출신 인사들과 掌樂院에서 同道會를 만들었고, 사헌부 지평에 제수된 1605년에 계회를 가진 뒤 이름과 광경을 적고 10첩의 작은 병풍으로 만들고 각자 하나씩 나누어 가졌다고 한다.⁴³⁾ 이 중 현재까지 확인되는 자료는 앞서 1601년의 『嶺南同道會題名卷』이다. 신지제가 예조 정랑·지제교를 지낼 때 서울에서 벼슬살이하는 동향 출신 간에 친목을 다지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계첩에 영남 출신의 관료 27인의 관직과 이름·출신지 등이 적혀 있다.⁴⁴⁾

42) 심경호, 앞의 해제, 35~3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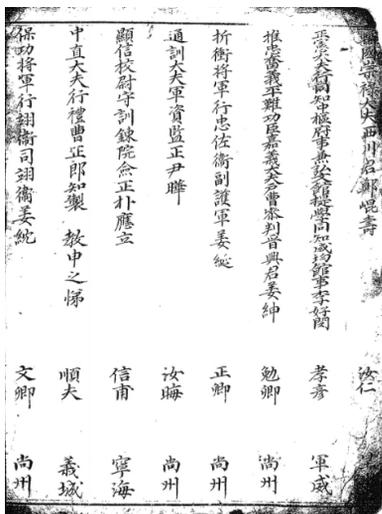
43) 申之悌, 『梧峯集』 『年譜』: “七月與嶺中諸公, 設同道會于掌樂院.”, “與同僚契會于霜臺。【憲府同僚約爲契會, 列名寫眞, 爲十疊小屏子, 各有一座。】”

44) 『古文書集成』 권77, 『의성이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597~599면. 기록된 인명은 보국승록대부 鄭崑壽(汝仁), 성균관사 李好閔(孝彦), 호조참판 卞興君 姜紳(勉卿), 충좌위 부호군 姜繼(正卿), 군자감 정 尹曄(汝晦), 훈련원 첨정 朴應立(信甫), 예조정랑 지제교 申之悌(順夫), 익위사 익위 姜紘(文卿), 울산도호부 판관 金澤龍(施普), 사헌부 감찰 權景虎(從卿), 성현찰방 柳仲龍(汝見), 중림찰방 全雨(時雨), 황간현감 吳克成(誠甫), 청산현감 李弘發(景晦), 창녕현감 朴光先(克憊), 전 장기현감 權世仁(景初), 사재감 주부 權淳(和甫), 용양위부사과 權澍(汝霖), 충무위 부사과 金憲(晦仲), 선공감 직장 盧道亨(伯嘉), 승문원 저작 李民寔(安甫), 교서관 저작 權濟(致遠), 선공감 봉사 申景翼(文叔), 예문관 검열 겸 춘추관 기사관 李民寔(而壯), 광흥창 부봉사 趙靖(安仲), 제용감 참봉 曺友仁(汝益), 승문원 부정자 南復圭(汝容) 등이다. 이 명단은 『問月堂集』 跋, 『別附錄·掌樂院契帖』에도 실려 있다.

<자료1> 『嶺南同道會題名卷』 서문



<자료2> 『嶺南同道會題名卷』 명단 첫 면



<자료1>의 서문은 당시 홍문관 제학을 지내던 李好閔이 썼으며, <자료 2>의 명단에서 신지제는 7번째에 위치해 있다. 처음 동도회를 설립했던 1601년에는 西川府院君 鄭崑壽(1538~1602)가 병으로 빠져 26인으로 시작했다가, 이듬해 서문을 쓰고 계첩을 만들 때 앞에 정곤수의 이름을 넣어서 27인으로 만들었다.

이호민의 『五峯集』 卷4에 계첩의 서문과 시가 한 편 있을 뿐 참여 인원들의 문집에는 이와 관련된 작품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계첩에 실린 명단 중에 신지제가 지방에 부임한 이후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가지고 수창한 李好閔, 趙靖, 李民寔·李民寔 형제, 曹友仁의 시가 『梧峯集』에 수습되어 있으므로, 이節에서는 이들과 나는 교유시와 이에 나타난 문인들의 우의를 살핀다.

아래의 절구는 신지제가 창원 부사로 재직하던 시기에 李好閔(1553~1634)을 만나 그의 시에 차운한 것이다.⁴⁵⁾

아득한 우주에 홀로 누대에 올라보니	宇宙悠悠獨上樓
호방한 만랑 본래 어울릴 사람 없네	漫郎疎宕本無儔
북두자루 기울여 남극노인과 대작하며	願傾北斗酬南極
저 바다만큼 술 빚어 마음껏 즐기기를	釀盡滄溟滿意遊

이호민의 자는 孝彥, 호는 五峯·南郭·睡窩, 본관은 延安이다. 20여 년의 벼슬살이에서 한 번도 外職으로 나간 일이 없다는 이호민의 관력은⁴⁶⁾ 전란을 수습하느라 외직을 주로 지냈던 신지제와 대조를 보인다. 起句에서 말한 누대는 창원의 月影臺를 말한다. 신라 말 孤雲 崔致遠이 만년에 소요하며 강학했던 장소로 알려져 있으며 이 월영대를 소재로 한 시는 『梧峯集』 내에서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承句에서 신지제가 자칭한 ‘漫郎’은 顏眞卿이 “원결이 瀼水 가에 살면서 浪士로 자처하며 「浪說」 7편을 지었는데 뒤에 말직에 오르자, 사람들이 ‘낭사라는 자도 부질없이[漫] 벼슬을 하는가?’ 하였다”⁴⁷⁾라고 썼던 내용에서 유래한 말로, 주로 세속에 얽매이지 않은 호탕한 문사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인다. 轉句와 結句에서는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을 기울여 술을 담아⁴⁸⁾ 바닷물처럼 한없이 마시기를 바란다는 호방한 풍류를 드러내었다.

『梧峯集』에는 위의 시에 이어 이호민의 原詩가 첨부되어 있는데,⁴⁹⁾ 남쪽

45) 申之悌, 『梧峯集』 卷2, 「檜山雜詠·上」, 「次五峯相國【李公好閔】韻」

46) 閔丙秀, 「五峯 李好閔의 詩世界」, 『한국한시작가연구』 7권, 태학사, 2003, 27면.

47) 顏眞卿, 「容州都督兼御史中丞本管經略使元君表墓碑銘」

48) 술잔을 나타내는 ‘北斗’ 意象의 典型은 『詩經』 「小雅·大東」에 “남쪽 하늘에 기성이 떠 있어도 나락을 까불릴 수 없고, 북쪽 하늘에 북두성이 있어도 술을 떠 마실 수 없네. [維南有箕 不可以簸揚 維北有斗 不可以挹酒漿]”라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49) 申之悌 著, 앞의 책1, 166면 : 본 시를 붙이다[附本韻]

합포영 앞 물결 누각에 밀려오는데	合浦營前水拍樓
시를 읊는 태수 바로 신선의 무리일세	吟詩太守是僊儔
남쪽으로 돌아가면 중추절이 되리니	南歸須及中秋節
기꺼이 최고운처럼 월영대에서 놀리라	好作孤雲月影遊

변방 창원에서 어울릴 사람 없이 쓸쓸하게 지냈던 신지제에게 중앙에서 文名을 떨친 이호민은 詩情을 함께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문사이자 시를 수창할 수 있는 詩友였다. 咨文·奏文 등 公用文字를 짓는 데에 탁월한 역량을 가졌던 이호민은 당대에 詩로 이름을 떨쳤던 月汀 尹根壽(1537~1616)·月沙 李廷龜(1564~1635)·東岳 李安訥(1571~1637) 등과 서로 집을 방문하고 시를 주고받을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고 한다.⁵⁰⁾ 『梧峯集』에도 이안눌의 시에 차운한 작품이 실려 있어 신지제와 교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⁵¹⁾

신지제가 趙靖(1555~1636)에게 준 전별시 안에는 여러 문인을 빗댄 표현이 보인다. 趙靖의 지는 安仲, 호는 黔澗, 본관은 풍양이다. 아래 시는 청도 군수를 지낸 趙靖이 체임되자, 40운 40자로 지어준 전별시의 일부이다.⁵²⁾

.....

임기가 순식간에 다 갔으니	瓜期仍倏忽
갈령처럼 한가로이 살려 하겠지	葛令肯婆娑
늘그막에 잠홀을 돌려주고	末路還簪笏
초심의 은자로 돌아가네	初心返芰荷
그림처럼 푸르른 상산에	商山蒼似畫
벽옥보다 짙은 낙동강	洛水碧於玻
오리 신 날아오기 편하도록	容易翮鳧鳥
문 앞 새그물을 싹 걷었지	蕭條捲雀羅
친구 다들 속되지 않으니	朋儔多不俗
속마음 모두 다르지 않네	心膽揚無他

50) 閔丙秀, 앞의 논문, 9면.

51) 申之悌, 『梧峯集』卷2, 「檜山雜詠·上」, 「次東岳【李公安訥】韻」.

52) 申之悌, 『梧峯集』卷3, 「檜山雜詠·中」, 「청도 군수 조안중이 임기가 차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서 주려고 짓다. 40운[聞趙清道安仲, 秩滿將還, 擬贈. 四十韻].

호학 훌륭한 가르침 보존하고	湖學存名教
강재 강마하는 이 모였구나	江齋會講廳
바윗골에 밭 갈러 곡구로 돌아갔고	耕巖還谷口
쇠 공이 갈러 광산 언덕 되돌아갔지	鍊杵返匡阿
.....	

조정이 임기가 차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신선의 법술을 좋아하는 나머지 關內侯를 마다하고 煉丹을 위해 羅浮山에 은거하였다는 쑤나라 도사 葛洪에 빗대었다. 조정이 돌아가게 될 ‘商山’은 그의 고향 경북 尙州의 옛 지명으로⁵³⁾ 商山四皓가 은거했던 상산과 중의적으로 사용하였다. ‘우리 신[鳧鳥]’은 후한 때 신선술에 능했던 王喬가 먼 곳으로 날아갈 때 사용했던 수단이다.⁵⁴⁾ 이 고사를 인용하여 조정을 신선에 빗대고 조정이 날아 돌아올 때 걸리지 않도록 한적한 집 앞에 쳐두었던 그물을 걷어 놓았다고 말하였다.

‘谷口’는 西漢 말엽의 鄭子眞이 뜻을 굽히지 않고 바윗골 아래에 은둔하며 농사를 지었다는 곳이며, ‘匡山’은 공부를 그만두고 하산하던 李白이 쇠절굿공이를 갈아 비늘을 만들고 있던 노파를 만나 깨달음을 얻어 되돌아갔다는 산의 이름이다. 지인과 동일한 鄭氏와 李氏 姓을 가진 고사 속 인물을 활용하여 구성한 시구로, 小注에 따르면 鄭子眞과 李白의 고사는 바로 동향인 愚伏 鄭經世(1563~1633)와 蒼石 李垞(1560~1635)을 비유한 것이라 한다. 趙靖의 고향을 정자진과 이백의 은거지에 비유하면서, 같은 성씨에 착안하여 정자진을 정경세에 빗대고 이백을 이준에 빗댄 발상이 참신하

53) 趙靖은 훗날 고향 상주의 涑水書院에 追享된다.

54) 왕교가 섭현 현령으로 있으면서 조회 때마다 수레나 말도 타지 않고 머나먼 길을 와서 참석하자, 이를 괴이하게 여긴 임금이 살펴보게 하였는데, 그가 올 때마다 오리 두 마리가 동남쪽에서 날아오므로 그물을 쳐서 잡고 보니 그물 속에 신발 한 짝만 있었다고 한다. (『後漢書』 卷28, 『王喬列傳』)

다. 小注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들으니, 조정[安仲]이 일찍이 손기양[景徵], 김윤안[而靜]과 龍門山을 유람하였다. 고을을 이웃하고 수령을 지내면서 삼년 동안 서로 만나지 못하였는데, 올해 7월에 달성 감영 아래에서 서로 만났다고 한다. 이백이 광산에서 독서하고 일 년 만에 나와서 어떤 신인을 만났는데, 신인이 “내가 쇠 절곳공이를 간 지 7년이다.”라고 하자 이백이 광산으로 도로 들어가 7년이 되어서야 나왔다. 두보의 시에 “글 읽었던 이곳 광산에, 백발의 그대 돌아오게나.[匡山讀書處, 頭白好歸來]”라고 하였다. 당시 정경세[鄭景任]·이준[李叔平]이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정경세와 이준 두 사람의 일을 언급하였다.⁵⁵⁾

소주에서 말한 용문산은 淸道에 있는 雲門山의 이칭이다. 1614년에 청도를 다스리던 趙靖이 손기양에게 서찰을 보내어 大丘府使로 있던 東籬金允安과 함께 운문산을 유람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응한 손기양은 그들과 함께 운문산을 유람한 뒤 『遊雲門山錄』을 남겼다.⁵⁶⁾ 이준은 정경세와 많은 교유시를 나눈 것으로 이미 연구가 되어 있고,⁵⁷⁾ 위 조정에게 준 전별시를 통해서도 신지제·손기양·조정·정경세·이준·김윤안의 교유가 긴밀하게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⁸⁾

55) 申之梯, 『梧峯集』 卷3, 『檜山雜詠·中』: 聞安仲曾與景徵而靜遊龍門山. 連城爲宰, 不相就三年. 今年七月相值達成營下. 李白讀書匡山, 一年而出, 遇一神人曰: “我鍊鐵杵七年” 白還入匡山, 七年乃出. 杜詩: “匡山讀書處, 頭白好歸來.” 時鄭景任·李叔平皆還鄉. 故使鄭李二事.

56) 이종목, 『손기양(孫起陽)의 글과 함께 하는 운문산 여행』, 『문헌과 해석』 78호, 태학사, 2017, 13~37면.

57) 여운필, 『한국한시작가연구』 8권, 『蒼石 李堉의 交遊詩의 한 樣相』, 태학사, 2003, 93~132면.

58) 李灝이 작성한 손기양의 행장에서도 당대 영남 문인들의 긴밀한 교유가 입증된다. 이익의 행장에 따르면 신지제와 함께 鄭經世, 曹好益, 李潤雨, 李典, 李堉, 成安義, 呂大老, 趙靖, 徐思遠, 李厚慶 등도 손기양을 중유하였다고 한다.(심경호, 앞의 해제, 23~71면.)

신지제는 고향 義城에서 李民崐·李民寔 형제를 비롯한 유생들과 함께 모여 수창하였다.⁵⁹⁾

시원한 들의 대에 돌벼랑 펼쳐 있고	野臺瀟灑石厓開
푸른 산빛 어지러이 물에 비쳐오네	山翠紛紛映水來
이별의 길 슬퍼하며 서로 전송한 뒤로	惆悵離程相送後
남쪽 길에서 다시 술 마실 친구 없으리	南征無復故人盃

李民崐·李民寔 형제가 開·來·盃를 운자로 지은 시에 신지제가 수창한 3수 중 1수이다. 『梧峯集』에는 신지제가 지은 3수의 시마다 아래에 이민성과 이민환 형제의 原詩가 2수씩 더 실려 있어 위 시체에 모두 9수가 실려 있다. 제목의 氷山洞은 의성군 春山面 氷溪里 지역으로 “時自檜山來會”라고 부기된 小注로 보아, 신지제가 당시 창원 부사로 재직하던 중에 고향 의성으로 왔다가 모인 것임을 알 수 있다.

轉句와 結句에서 헤어진 뒤 다시 남쪽 창원으로 돌아가고 나면 술 마실 벗이 없다는 시상은 당나라 王維가 “그대에게 다시 한 잔 술을 권하니, 서쪽으로 양관을 나가면 친구가 없기 때문이네[勸君更進一杯酒, 西出陽關無故人]”라고 한 구절에서 가져온 것이다. 왕유가 술을 권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민성·이민환 형제도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각 原詩에서 “떠나는 자리에서 애써 술잔 거절 하지 마오[莫向離筵苦拒盃]”, “오늘 종일 흠뻑 취해도 상관없다오[不妨終日倒深盃]”라고 結句를 지어 신지제에게 술을 권하였다.

이민성·이민환 형제의 고향은 의성으로 신지제와 고향이 같으며, 이민환과 신지제는 사돈 관계이다. 위 전별연 외에 두 형제 및 다른 유생·문인

59) 申之梯 著, 앞의 책1, 341면 : 『빙산동 입구 시냇가에서 술을 마시고 관보와 이장 및 제생들과 함께 운자를 불러 짓다[氷山洞口, 臨溪酌酒, 同寬甫而壯【李公民寔號紫巖】及諸生呼韻】』

들과 가진 모임과 관련한 시로는 의성 雲谷에 있던 운곡사에서 신녕 현감 全以性 및 의성 현감과 만나기로 약속한 뒤 이민성과 가서 이야기 나누고 돌아온 일을 읊은 시가 있고,⁶⁰⁾ 창녕 뱃놀이 모임에 이민환과 전이성이 참여한 것을 기뻐하며 朴瑞龜의 시에 차운한 작품이 있다.⁶¹⁾

『嶺南同道會題名卷』에 실린 인물 중 신지제가 曹友仁(1561~1625)에게 준 시는 그가 낮은 관직에 있다가 파직되자 그 재주와 기상을 안타깝게 여기고 격려하는 뜻으로 지은 차운시 1수⁶²⁾가 있다. 시에서 교유가 확장되는 문인이 보이지 않아 여기서 다루지 않았으나, 洪履祥·鄭士信·孫起陽·金允安·金中淸 등의 문집에 조우인과 차운한 시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관계망 또한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맺음말

이 연구는 신지제의 시문학을 그의 관계망 및 시대배경을 고려하여 분석함으로써 시에 나타난 교유 양상과 유대,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사유 등을 살핀 것이다. 먼저 『梧峯集』 연보에 실려 있는 교유 문인과 당시 상황을 토대로 예안 현감으로 재직했던 시기에 조목·김부륜·금난수에게 증여한 시를 살피고, 향전 활동을 통한 교유와 작품에 나타난 향전 의식 및 국난 극복에 대한 열망을 파악하였다.

또한 각종 史籍에 기록된 영남 의병과 신지제의 시에서 접점이 보이는 인물을 확인하여, 임진왜란 때 순국한 김해와 정유재란 때 전사한 조종도의

60) 申之悌, 『梧峯集』 卷5, 「地主書至, 邀會雲谷, 全新寧性之昨往花山, 歸路約來, 與寬甫併往參話, 還後聊以記事」

61) 申之悌, 『梧峯集』 卷4, 「舟遊喜而壯性之【全公以性】來次廣文」

62) 申之悌, 『梧峯別集』, 「次曹汝益【友仁】韻」

관계를 밝히고 신지제가 시를 통해 기린 그들의 충절과 의기를 살폈다.

전란 중 구국 활동을 매개로 맺어진 교유는 전란이 끝난 뒤에도 雅會를 통해 이어져서, 손기양·곽재우·여대로 등과 뱃놀이나 전별연에서 수창하며 함께 어울렸다. 1601년에 영남 출신 인사들과 掌樂院에서 만든 同道會의 회원 중에 신지제가 지방에 부임한 이후로도 지속적인 교유를 가지고 수창한 이는 李好閔, 趙靖, 李民宥·李民寔 형제, 曹友仁 등이 있다. 주연이나 전별연 모임에서 증여한 시를 토대로 작품에 나타난 관계망과 우의, 이들을 매개로 확장된 교유의 양상을 살폈다.

신지제의 시문학에서 교유에 중점을 두어 검토한 이 연구가 작가의 시세계와 문학적 특징을 모두 드러내지는 못하더라도, 신지제가 전란 중에 중앙과 지방을 오간 뒤 고향으로 물러난 세월 동안 긴밀하게 교유한 인물들과 교유시의 대략적 실상을 파악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원전 자료>

- 『古文書集成』 권77, 『의성이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郭再祐, 『忘憂集』, 『한국문집총간』 제58집.
- 琴蘭秀, 『惺齋集』, 『한국문집총간·속』 제4집.
- 金富倫, 『雪月堂集』, 『한국문집총간』 제41집.
- 金允安, 『東籬集』, 『한국문집총간·속』 제12집.
- 金垓, 『近始齋集』, 『한국문집총간·속』 제9집.
- 孫起陽, 『罄漢集』, 『한국문집총간·속』 제11집.
- 申之悌, 『梧峯集』, 『한국문집총간·속』 제12집.
- 申之悌, 『梧峯先生文集』,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본.
- 李民宥, 『敬亭集』, 『한국문집총간』 제76집.
- 李民寯, 『紫巖集』, 『한국문집총간』 제82집.
- 李垓, 『蒼石集』, 『한국문집총간』 제64~65집.
- 李好閔, 『五峯集』, 『한국문집총간』 제59집.
- 趙穆, 『月川集』, 『한국문집총간』 제38집.
- 趙任道, 『澗松集』, 『한국문집총간』 제89집.
- 趙靖, 『黔澗集』, 『한국문집총간』 제61집.
- 趙宗道, 『大笑軒逸稿』, 『한국문집총간』 제47집.
- 趙亨道, 『東溪集』, 『한국문집총간·속』 제15집.
- 洪履祥, 『慕堂集』, 『한국문집총간·속』 제6집.

<단행본>

- 강필임, 『시회의 탄생』, 한길사, 2016.
- 민병수, 『한국한시사』, 태학사, 1996.
- 신수식, 『오봉 신지제의 생애와 임진란 의병활동』, 도서출판 성문기획, 2020.
- 신지제, 『오봉선생문집』 1·2, 김기엽·김홍구·천성원 譯, 한국국학진흥원, 2019.
- 심경호, 『한국 한시의 이해』, 태학사, 2000.
- 이가원, 『한국한문학사』, 보성문화사, 2005.
- 임준철, 『조선중기 한시 의상 연구』, 2011.

<연구논문>

- 강혜선, 「고려 말 사대부의 교유시(交遊詩) 연구 -둔촌, 척약재, 포은, 도은, 삼봉, 양촌을 중심으로-, 『韓國漢詩研究』 22, 2014.
- 권은지, 「白軒 李景奭의 交遊詩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김기엽, 「梧峯 申之梯의 生涯와 詩에 表출된 鬱結의 樣相-, 『韓國漢文學研究』 76, 한국한문학회, 2019.
- 閔丙秀, 「五峯 李好閔의 詩世界-, 『한국한시작가연구』 7권, 태학사, 2003.
- 박명숙, 「오봉 신지제 선생의 생애와 학문-, 『동양예학』 38집, 동양예학회, 2017.
- 심경호, 「韓國 漢詩의 歷史-, 『한국한시연구』 1권, 한국한시학회, 1993.
- 沈壽哲, 「近始齋 金垓의 生涯와 文學世界-,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여운필, 「蒼石 李垓의 交遊詩의 한 樣相-, 『한국한시작가연구』 8권, 태학사, 2003.
- 尹載煥, 「『三唐集』을 통해 본 조선 중기 문인들의 이별 그리고 그리움의 변주 -삼당 사이의 교유시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7, 2009.
- 이종목, 「孫起陽의 글과 함께 하는 운문산 여행-, 『문헌과 해석』 78호, 태학사, 2017.
- 張弼基, 「조선후기 義城 鵝州申氏家의 가계 이력과 향촌 재지 기반-, 『사학연구』 제88호, 한국사학회, 2007.
- 하정승, 「李崇仁 시에 나타난 唐詩風 경향과 미적특질-, 『한문학논집』 39, 근역한문학회, 2014.
- 황만기, 「오봉 신지제의 학문 경향과 삶의 제 양상-, 『영남학』 69, 영남문화연구원, 2019.

<참고 웹사이트>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index.aks>
-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 <http://yn.ugyo.net>

<기타 자료>

- 신승운, 「한국문집총간 《退溪集》 해제-, 한국고전번역원, 1998.
- 심경호, 「《梧峯先生文集》 해제-, 『梧峯先生文集』 1, 한국국학진흥원, 2019.

申之悌의 詩에 나타난 交遊 양상 연구

梧峯 申之悌(1562~1624)는 조선 중기의 문인으로, 임진년과 정유년의 전란 때 의병 활동을 주도하였으며 이후에 당대의 문호들과 많은 한시 작품을 주고받았던 인물이다. 임진왜란 때 조목에게 수창하여 왜적을 물리쳐 공을 세울 것을 鼓舞하였고, 김부륵에게 시를 올려 일본과의 강화를 비판하며 항전 의지를 다졌으며, 청량산의 형세를 살핀 후 금난수에게 증여한 시에서 전쟁의 종식과 다음 유람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었다. 김해와 서로 처자식을 맡길 정도로 각별했던 신지제는 임진왜란 때 김해가 순국하자 그를 애도하는 만시를 짓고 남은 가족들을 보살폈으며, 장편의 시로 조씨 문중 사람들의 충절을 기리며 정유재란 때 전사한 조종도의 의기를 칭송하였다.

의병 활동을 통해 맺어진 교류는 전란이 끝난 뒤에도 이어져 손기양과 함께 곽재우의 忘憂亭을 방문하고 뱃놀이를 즐겼다. 손기양을 전별한 시에서 李垓·鄭經世와 교분이 이어졌으며, 呂大老와 뱃놀이를 하면서 지은 율시에서 朴瑞龜의 시적 역량에 대한 인식이 드러났다. 1601년에 掌樂院에서 만든 『嶺南同道會』의 인원 중에 신지제와 지속적인 교류를 가지고 시를 주고받은 이는 李好閔, 趙靖, 李民崧·李民窳 형제, 曹友仁 등이 있다. 이들과 주연이나 전별연 모임에서 증여한 시를 토대로 작품에 나타난 관계망과 우의, 이를 매개로 확장된 교류의 양상을 살폈다.

주제어 梧峯, 壬辰倭亂, 義兵, 詩會

A Study on the Companionship Appearing in Shin Ji-Je's Poetry*

Kim, Gi-yeop**

Obong(梧峯) Shin Ji-je(申之悌) was a literary person during the middle years of Joseon Dynasty, who led the activities of the unofficial troops of righteous army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in Imjin year and Jeong-you year. After that, he exchanged many works of Chinese poetry with literary lights of the day. During the war in Imjin year, poetry interchange with Jo Mok(趙穆) to encourage him to defeat Japanese invaders and render distinguished services. Also, he dedicated his poetry to Kim Bu-Ryun(金富倫) to criticize the negotiation with Japan, strengthening the spirit of resistance against Japan. After looking around and seeing the lay of the lands of Mountain Cheongnyang(靑涼山), in his poem dedicated to Geum Nan-su(琴蘭秀), he revealed his expectation for the cease of the war and ensuing his excursion. Shin Ji-je, who established a friendship with Kim Hae(金垓), which was special enough to leave his wife and kids to him and vice versa, wrote an elegy mourning Kim Hae's death for the county and was willing to take care of Kim's bereaved. Also, he admired the loyalty of the Jos Kinship in his long poem, praising the public spirit of Jo Jong-do(趙宗道) who died at the war of the Japanese second invasion in Jeong-you year.

The companionship developed during his resistance activities against Japan was still continued after the war. He would visit Kwak Jae-woo(郭再祐)'s Mangwoojung(忘憂亭) with Son Ki-yang(孫起陽) and enjoy boating. His poem singing farewell to Son Ki-yang shows his continuing friendship with Lee Joon(李峻) and Jeong Kyung-se(鄭經世), and his strophic poem written in boating with Yŏ Tae-ro(呂大老) reveals his recognition for Park Seo-Kyoo(朴瑞龜)'s poetic capability. According to the list of members of Yeongnam-dongdo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BK21 Plus project of The Society for the Development of Future Scholars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Korea University.

** Doctor's course completion, Major in Classical Chines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 University. / sinchay@hanmail.net

Association(嶺南同道會), which was made by Jangakwon(掌樂院) in 1601, those who exchanged poetry with Shin ji-je in constant companionship were Lee Ho-min(李好閔), Jo Jeong(趙靖), Lee Min-sung(李民歲) and Min-hwan(李民奐) brothers, Jo Woo-in(曹友仁), and etc. This study looked through the network and friendship that appeared in Shin Ji-je's works and the aspect of his extended companionship revealed in them based on his poetry dedicated during feasts or farewell banquets.

[Key words] Obong(梧峯), Japanese Invasion in Imjin year(壬辰倭亂), righteous army(義兵), poetry club(詩會)

논문투고일 : 2020.04.30. 심사완료일 : 2020.06.17. 게재 확정일 : 2020.06.17.